

은행권 주담대 금리 최고 4.5% 넘었다

‘신규취급액 기준’ 0.15%p 가량 일제히 상승...4.5%대 넘어선 곳도

연동된 코픽스 2년반래 최고치...신규취급액·잔액기준 모두 올라

18일 시중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일제히 올라 최고 4.5%를 넘어섰다. 예금금리가 오르는 등 조달비용이 늘어나며 코픽스(COP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가 2년반 만에 최

고치를 기록한 영향이다. 이날 은행권에 따르면 4대 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0.15%p 가량 상승했다. KB국민은행은 15일 3.11~4.31%에서 이날 3.26~4.40%로 올랐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은 2.97~4.28%에서 3.12~4.43%로 인상했다. KEB하나은행은 3.220~4.502%에서 3.370~4.504%로, 우리은행은 3.02~4.02%에서 3.17~4.17%로 각각 올랐다.

여기에 연동된 코픽스는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18일 전국은행연합회가 발표한 2017년 11월 코픽스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취급액 코픽스는 1.77%로 석달 연속 상승했다. 특히 이번에는 전담에 비해 0.15%p나 올라 상승폭도 가팔랐다.

한편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상승했다. 상승폭은 0.04%p 가량으로 신규취급액 기준에 비해서는 작다.

KB국민은행은 15일 3.26~4.40%에서 18일 3.30~4.50%로 인상했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은 2.87~4.18%에서 2.91~4.22%로 올랐다. 우리은행도 3.02~4.02%에서 3.06~4.08%로 상향 조정했다. KEB하나은행은 3.502~4.502%에서 3.504~4.504%로 소폭 인상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잔액기준 코픽스 금리는 전월보다 0.04%p 오른 1.66%를 나타냈다.

한편 고정혼합형 주택담보대출(5년 고정 이후 변동 혼합형) 금리는 시중금리 움직임에 연동돼 기준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오히려 소폭 하락했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기준 인상 기대감이 미미 선반영돼 실제 영향은 미미한 까닭이다. 금융채(AAA) 5년물의 금리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직후 잠시 오르다 지난 15일에는 2.484%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고정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비슷하게 움직였다. 18일 KB국민은행은 3.58~4.78%로 전주보다 0.02%p 내렸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은 3.54~4.65%로 0.01%p 인하했다. KEB하나은행은 3.604~4.604%로, 우리은행은 3.50~4.50%로 각각 낮췄다.



광주신세계, 신학기 아이들 가방 미리 선물하세요~ (주)광주신세계(총괄임원 최만도) 8층 아동매장에서는 일본 초등학생 책가방 브랜드인 세이반 '천사의 날개'를 15일 팝업으로 오픈했다. 란도셀은 튼튼한 내구성과 척추를 보호하는 기능, 물에 빠졌을 때 뜨는 부력, 지진이 발생했을 때 머리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 다양한 편의성이 강점이다. '천사의 날개' 제품은 25일까지 만날 수 있다.

롯데백 광주점, 성탄절 완구 세일행사

24일까지 9층 행사장서 마텔 패밀리세일...최대 90%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백화점 9층 행사장에서 글로벌 완구브랜드 '마텔 패밀리세일'을 진행한다. 18일 밝혔다. 세계 유명 완구브랜드인 마텔은 스포츠바, 미니언즈, 토마스와 친구들 등 친숙한 브랜드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비비인형으로 잘 알려진 완구브랜드이다. 마텔, 미니언즈, 피셔프라이스, 옥토티 스포츠바 등 총 13개의 글

로벨 완구브랜드의 인기상품 150여 종을 한 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으며 최대 90% 할인판매 행사를 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김미화 유아파트리더는 "자녀나 조카를 위한 성탄절 선물로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질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만나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光銀, 어린이 겨울왕국 'KJ원더랜드' 개관

내년 2월14일까지 무료 관람

광주은행은 18일 은행 본점에서 어린이들을 위해 동화 속 눈의 나라를 재현한 'KJ원더랜드'를 개관했다고 밝혔다.

올해 세 번째 겨울 개관을 맞은 KJ원더랜드는 산타, 루돌프, 트리 등으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연출했다.

새하얀 눈으로 덮인 기차마을과 북극곰, 이글루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지역민과 어린이들에게 겨울왕국으로 여행을 온 듯한 기분을 선사한다.

특히 올해는 산타할아버지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우주와 바다속으

로 선물배달 가는 것을 주제로 우주선과 잠수함을 제작했다.

또 포토존과 VR체험관을 만들어 프로그램을 더욱 알차게 꾸몄다.

KJ원더랜드는 이날부터 2018년 2월14일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관람시간은 평일과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평일 유치원 등의 단체 관람시에는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송중유 광주은행장은 "정성들여 만든 KJ원더랜드에 많은 지역민들과 어린이들이 찾아와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며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다양하고 지속적인 지역 공헌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서 진짜 크리스마스를 즐기자”

한화호텔앤드리조트(대표이사 문석)가 운영하는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는 12월의 가장 따뜻한 크리스마스로 기억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 및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먼저 아쿠아플라넷 여수는 12월 23일부터 24일까지 1시간 연중무휴 오후 8시까지 아쿠아리움 관람이 가능하다.

23일부터 31일까지는 오후 4시 이후에 방문하는 여수, 순천, 광양 지역민은 본인에 한해 패키지권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신분증 지참은 필수다. 또한 23일부터 25일까지는 산타로 변신한 다이버와 가위바위보를 해 이기면 경품을 받을 수 있는 [산타를 이겨라] 이벤트가 12시 20분, 2시 30분에 메인수조에서 진행된다.

이 밖에도 케릴라 산타 포토타임, 크리스마스 캐럴 릴레이 등 다채로운 현장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아쿠아플라넷 여수에서 진짜 크리스마스를 즐겨보자.

여수=송기홍 기자

알바생 10명중 6명 “올해 기부 경험 있다”

알바천국, 1304명 대상 설문 평균 기부 금액 15만8726원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6명은 파악할 수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 활동에 동참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은 최근(11월30일~12월11일) 전국 회원 13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6명 꼴인 59.2%가 올해 기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기부 경험 응답자의 평균 기부 금액은 15만8726원이었다.

기부 방법은 '정기 성금 기부'가 42%로 가장 많았다. 이어 '1회 단기 성금 기부(16.2%)', '재능기부(11.5%)', '기부팔찌 등 물건 구매 기부(10.8%)', '포털 사이트 포인트 기부(4.4%)', '물품 기증(4.3%)', '모바일 앱을 이용한 기부(2.5%)', '기타(8.5%) 순으로 나타났다.

기부 이유는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45.2%)'라고 말했다. 기타 답변은 '어려운 이웃을 향한 동정심 때문(23.1%)', '심리적 만족을 위해서(13.2%)', '도덕적 책임감과 의무감 때문(12.9%)', '기부 단체의 권유가 있어서(5.5%)' 등 순이다.

반면,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55.6%)'라는 답변이 가장 높았다. 이어 '기부단체의 신뢰성이 떨어져서(21.2%)', '기부에 관심이 없어서(8.8%)', '기부 방법을 잘 몰라서(5.3%)',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5.1%)',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해서(0.6%)' 등 답변이 이어졌다.

한편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단체의 투명한 기부금 운용(49.6%)'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